

**Colossians Week Three: Established and Firm**  
**Bo Stern-Brady**  
**February 18, 2024**

"골로새서 제3주: 견고하게 세우기"

보 스텐-브레이디 목사

**2024년 2월 18일**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and were enemies in your minds because of your evil behavior. But now he has reconciled you by Christ's physical body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in his sight,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if you continue in your faith, established and firm, and do not move from the hope held out in the gospel. This is the gospel that you heard and that has been proclaimed to every creature under heaven, and of which I, Paul, have become a servant. Colossians 1:21-23 NIV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행한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 속에서 적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을 통해 너희를 죽음으로 통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 없이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희망의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세우심을 받은 자로 거룩하게 서서 흠 없이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또한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에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선한 일군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21-23 NIV)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and were enemies in your minds because of your evil behavior. 1:21 옛적에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 속에서 적들로 여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21)

We're going to unwind this sentence in an attempt to get to the heart of it. There are several ways it could be interpreted, and this is the way I've chosen because I think it's the right one - but know that the Bible is deep water and we need to read it prayerfully and ask Jesus: What are you saying to me through this? This is what I feel He's saying to us corporately, today...but please dive in this week to this letter and read it for yourself. 우리는 이 문장을 해독하여 그 핵심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나는 이 방식이 옳은 것 같아 이렇게 선택했지만, 성서는 깊은 물이며, 기도하며 읽고 예수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려는 내용이라고 느끼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이 편지를 직접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In the previous section, David explained to us last week, Paul beautifully preaches the preeminence and majesty and fullness of Jesus. NOW he moves to some very bad news. I know that never once in my life have I woken up and thought, "I would like to be God's enemy today." But Paul is insisting here that at one time, I was on the outside looking in. We all were on the outside looking in. Have you ever shown up somewhere and feel like you just don't belong? Like something is separating you from the companionship and camaraderie you were hoping to find there? (Party at our house...in walked three guys in ski suits, holding beers. They entered exuberantly, holding up their beers for a group cheers and quickly realized...no one else had beers...looked at each other, laughed and said, "Oops. Wrong party.")

이전장에서 David은 지난 주에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아름답게 예수의 특별함, 위엄, 그리고 총만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매우 좋지 않은 소식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 동안 한 번도 깨어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적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는 걸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한 번은 나도 포함하여 바깥에서 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밖에서 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나타나서 자신이 그곳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무엇인가가 당신을 거기서 찾던 동료와 동지들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요? (우리 집에서의 파티... 스키 수트를 입은 세 명의 남자가 맥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들뜨게 들어가서 그룹으로 함성을 지르려 했지만, 빨리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맥주를 들고 있지 않았고... 서로를 쳐다보고 웃으며 "어이. 잘못된 파티로 왔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We were separated. Looking from the outside in. Longing for true life and what Paul calls "the hope held out in the gospel" and we couldn't get to it. If I told you there was something you really, really wanted - let's say three million dollars - but I also tell you there's something standing between you and the money, what would your first question be? What is it? What's in the way? Is it a five-foot fence or a pride of hungry lions? The nature of the obstacle will determine how likely you are to work to overcome it. It will also determined your strategy for getting to the thing that will make all your dreams come true.

우리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삶과 바울이 "복음에서 제시된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갈망했지만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한다면 - 예를 들어 300만 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 여러분의 첫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5피트 높이의 울타리인가요, 아니면 배고픈 사자 무리인가요? 장애물의 성격은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결정할 것입니다

Last week, we saw that Jesus came to reign supreme and to invite us into the life that he offers...but now, we see that something was keeping us outside or alienated from that life (greek = "non participant" .) Paul helpfully tells us what the obstacle is: 지난 주에 우리는 예수가 지배하러 오고 우리를 그가 제공하는 삶으로 초대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를 그 삶 밖이나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어 = "비참가자"). 바울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무엇인지 유용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and were enemies in your minds because of your evil behavior. "옛적에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 속에서 적들로 여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21)

We could blame a lot of things for keeping us distant from God - culture, education, pedigree. But the thing actually creating this lonely wasteland of space between us and Him is our own minds. The call is coming from inside the house! Our minds have convinced us that we are enemies ...we are not loved by Him or that for some reason we cannot love him in return. What creates this? Looks to me like Paul says that our own behavior has created a record against us that is held BY us. These are all the ways I feel disqualified from the love of God. These are the ways that I know I am unworthy to be His own (our enemy is glad to agree with us when we think we are unworthy). We might forget why we walked into the break room at work or where we parked our car when we leave Costco, but we are AMAZINGLY Gifted at remembering the reasons and the ways we do not measure up.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탓할 수 있습니다 - 문화, 교육, 혈통 등. 그러나 사실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외롭고 황량한 빈 도원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집 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적이라고 확신시킵니다... 우리는 그에게 사랑받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그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만들어내는 걸까요? 나에게 보이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 우리에게 대한 기록을 만들어 냈고 이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당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그의 소유가 될 가치가 없다고 알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적도 동감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직장의 휴게실에 왜 들어갔는지나 Costco를 나올 때 어디에 차를 주차했는지를 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그의 사랑에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방법을 기억하는 데 놀랄 만큼 능숙합니다.

Dallas Willard's definition of discipleship. Six elements of the human condition. 댈러스 윌러드의 제자 훈련에 대한 정의. 인간의 상태의 여섯 가지 요소.

Thoughts  
 Feelings (emotions)  
 Decisions  
 Relational context  
 Physical body  
 Soul  
 생각  
 감정  
 결정  
 관계적 맥락  
 신체  
 영혼

As we orient these things around the person and purpose of Jesus, we begin to become like Him and, thus, FLOURISH. They are all interconnected in a million ways, but the first three specifically are like an ecosystem within our person. Our feelings are a response to the things we are thinking and our decisions are birthed out of both of those things.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사람과 목적을 중심으로 정렬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지며, 그 결과로 번영하게 됩니다. 이들은 수백만 가지 방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처음 세 가지는 우리의 개인 안에서 생태계와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이며, 우리의 결정은 이러한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Your brain is an incredible network of thoughts traveling interconnected pathways creating emotions and formulating decisions or actions. We think anywhere between 12,000-75,000 thoughts per day and make upwards of 35,000 decisions each day. Can you see in those numbers how the outflow of your whole life is being directed by your thoughts? Often when the Bible talks about the heart, it is actually talking about this hub of thought/emotion/decisions. This is usually the place my engagement with the person and purpose of Jesus starts and it's also the place where it can most easily get stopped. 당신의 두뇌는 상호 연결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생각의 놀라운 네트워크로, 감정을 형성하고 결정이나 행동을 고안합니다. 하루에 약 12,000~75,000개의 생각을 하며, 하루에 최대 35,000개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 숫자들에서 당신의 전체 삶의 흐름이 어떻게 당신의 생각에 의해 이끌리는지 보이시나요? 성경이 종종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는 이 생각/감정/결정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예수님과 그의 관여가 시작되는 곳이며, 또한 가장 쉽게 중단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Left to their own devices, my thoughts will not naturally lead me toward peace and life and health and wholeness. They will quite naturally move toward worst case scenarios and fear and anxiety and pride and manipulation and sin. That's the human condition. But Jesus is not afraid of the human condition, in fact, he came to take on our humanity. To live with a human brain and human emotions and so he knows what it's like to live in our context in a really noisy, scary world. 만약 제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평화와 생명, 건강, 그리고 완전함으로 이끄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절로 최악의 상황, 두려움, 불안, 오만, 조종, 그리고 죄로 향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우리의 인간성을 자신에게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두뇌와 감정을 가지고 살며, 그래서 그는 우리가 정말 시끄럽고 무서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Paul also wrote to the church in Rome about this - here, speaking of humanity in general: For although they knew God, they neither glorified him as God nor gave thanks to him, but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Although they claimed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and exchanged the glory of the immortal God for images made to look like a mortal human being and birds and animals and reptiles. Romans 1: 21-23

바울은 또한 로마 교회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는 일반적으로 인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이 헛되고 어두워진 마음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혜롭다고 자칭하나 어리석어져, 썩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인간과 새와 짐승과 기는 것의 형상으로 변형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로마서 1:21-23)

They knew him - but didn't glorify him. They weren't impressed. They didn't see him for who he truly was because their thinking was futile (greek - vain, foolish, idolatrous) and then he describes a darkness that covers their understanding and their hearts. This is internal darkness and internal futility that keeps us separated from the reality and the presence of God. And in the absence of His presence, we create other little gods - and we build them up in our minds as something bigger than they are. Our idols are different today, but just as real. We exchange the glory of the immortal God for images made to look like a job or a boyfriend or a paid-off-mortgage or anything that gives a bit of temporary happiness but cannot provide permanent satisfaction. Our minds can easily become the shrine for all kinds of unworthy

gods - gods who cannot possibly hold the full weight of all our hopes and dreams. These mini gods keep us separated from our friend, Jesus. Separated from the hope that is found in Him.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헛되고(그리스어 - 헛된, 어리석은, 이상 숭배의) 그 후에 그는 그들의 이해와 마음을 덮치는 어둠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실과 존재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내부적인 어둠과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다른 작은 신들을 창조하고, 마음 속에서 그들을 실제보다 크게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실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잠시 동안의 행복을 주지만 영원한 만족을 제공할 수 없는 일, 직장이나 남자친구, 모두의 차를 갚았다든가 같은 것들을 무역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손쉽게 각종 가치 없는 신의 성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 신들은 우리를 우리의 친구 예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 안에 있는 소망에서도 분리시킵니다.

What is the answer?

Our text tells us this: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and were enemies in your minds because of your evil behavior. But now he has reconciled you by Christ's physical body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in his sight,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 옛적에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 속에서 적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한 죽음으로 너희를 화해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의 목전에 거룩하고 흠 없이 그리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Once you were distant and separated and now you are reconciled. Reconciled means restored relationship, harmonious friendship...the distance between us has been bridged by what? By Christ's own body. His death on the cross. Remember the moment on the cross when it says the veil was torn in the holy place? That space that was reserved for only a very few was opened up to everyone. Jesus's death welcomed us all into His life...it qualified us to make peace with Him in every way, but in particular, in the space of our minds that often wants to pit us against His goodness or cause us to doubt His love. 옛날에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화해되었습니다. 화해되었다는 것은 복원된 관계, 조화로운 우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어떤 것에 의해 메워졌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소 안의 장막이 찢어진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매우 소수만이 허락된 공간이 모든 이에게 열렸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의 생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와 모든 방법으로 화해를 이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서, 그의 선하심에 우리를 대립시키려는 욕망이나 그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We can know God and believe in Jesus and still let our thoughts live distant from the reality of His power in our world and in our lives. Two weeks ago I mentioned that I was studying about peace and excited to teach and in my office, I felt a dark cloud of discouragement and depression come over my mind. My thoughts were suddenly darkened. We've all experienced it. We can exist in the awareness that we're going to heaven, but experience constant hell on earth in our minds. That is not the will of God for His people. That is not the way of Jesus for us. He came to conquer sin and death and to bring the kingdom of light into minds that are dark without him. I know how out of control our thoughts can feel. Like herding cats. But are they really out of control?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활과 세상에서 그의 권능의 현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주 전에 나는 평안에 관해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낙담과 우울함의 어두운 구름이 내 마음에 드리웠습니다. 나의 생각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갈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마음에서는 끊임없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그는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그의 없는 어두운 마음에 빛의 나라를 가져오려고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를 몰아내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로 그것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Turn your attention to your breathing for a moment. Think only about how your breath comes into your lungs and fills them and then goes out of them the same way it came. Breathe in...out. The minute you turned your attention to your breathing...you began to control it. You were breathing before, but it was happening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your mind. Thoughts are the same way. Again, Paul...this time talking to the church at Corinth:

(잠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어떻게 허파로 들어가 채우고 그 후에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들이쉬기... 내쉬기. 당신이 호흡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숨을 쉬고 있었지만, 마음의 참여 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We demolish arguments and every pretension that sets itself up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and we take captive every thought to make it obedient to Christ. 2 Co. 10:5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적하여 모든 논쟁과 모든 것을 토대삼아 높아지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로잡아 지니라." (고린도후서 10:5)

Every time our thoughts tell us we are unworthy or distant or alienated from the love of God, we can choose to move them back to this truth: Jesus died on the cross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me. I am safe in His love. I am safe in His love. As we take the driver's seat of our own thoughts, we can begin to build new automatic processes that keep leading us back to His love when the dark clouds come. Jesus made peace for me on the cross so that I KNOW I am holy,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 매번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되었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이 진리로 되돌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는 나를 위해 큰 사랑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그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주도할 때마다, 어두운 구름이 올 때마다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이끄는 새로운 자동적인 과정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흠 없으며 책망 받을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If something specific accuses you when you do this, the mistakes you made last week or last month or six years ago - take a moment to thank Jesus for the price He paid so you could be free from the accusations against you. In these moments of closing the distance between yourself and the God who loves you, He may also whisper some wisdom for your fight...perhaps you need to make restitution to someone, ask forgiveness, something tangible that will clear the clouds and help you see Jesus more clearly and feel His presence near and dear instead of hazy and far away. 만약 이것을 할 때 특정한 것이 너를 고발한다면, 지난 주나 지난 달 또는 여섯 년 전에 했던 실수들 - 예수께서 너를 향한 고발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하신 가격에 감사하는 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이 순간에, 그는 또한 네 싸움에 대한 어떤 지혜를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야 할지, 용서를 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무언가가 구름을 걷어주고 예수를 더 명확하게 보고 그의 근처에서 흐릿하지 않게 느끼게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This process in our thoughts/feelings/decisions is part of what Paul is saying in the last part of our text: 이러한 과정은 바울이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if you continue in your faith, established and firm, and do not move from the hope held out in the gospel. Colossians 1:22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 속에 있는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골로새서 1:22)

I don't love the word "if" in the Bible. Such a small word with such big implications. And I hate when we get this word wrong - I got it wrong for the first thirty or more years of my life. 성서에서 '만일'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단어에 큰 함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할 때 정말 싫어해요 - 제 인생의 처음 서른 년 이상 동안 그걸 잘못 이해했거든요. I thought God was an "if I \_\_\_\_\_ then He will love me." Fill in the blank: tithe, attend the right church, read three chapters a day, whatever...then he will keep my kids safe, give me that promotion, help us get that new car. The prosperity gospel is built around a vending machine God. I put \$20 in the offering plate and He gives \$200 back. If I, then He. That's not this verse. That's not Paul's heart here. BUT...there are a lot of important if's and it DOES carry a great deal of significance.

나는 하나님이 "내가 \_\_\_\_\_ 하면 그는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십일조, 올바른 교회에 출석, 매일 세 장 읽기, 뭐든지... 그러면 그는 내 아이들을 지키시고, 나에게 승진을 주시고, 새 차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번창복음은 자판기 같은 하나님 주위에 건축되어 있어요. 나는 헌금통에 20달러를 넣고 그가 200달러를 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런 다음 그가. 그것은 이 성구가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많은 '만약'이 있고, 그것은 실제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this case, we've been talking about the beautiful gift of Jesus' death on the cross and the benefits it bought for us. Those benefits can not be taken from you or earned. The only 'if' connected with those benefits is "If you believe in your heart and confess with your mouth..." That's it. Such a low point of entry to the redemption work of the cross. And there's no point of entry AT all on the gift of His love for you - before He formed you in the womb, He loved you. Amazing! So what does the "if" apply to here?

이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아름다운 선물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혜택들은 당신으로부터 빼앗거나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 혜택들과 관련된 유일한 '만약'은 "네 마음으로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면..."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적 역사에 들어가기 위한 매우 낮은 입장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선물에 대한 입장 요건은 전혀 없습니다 -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그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Jesus has forgiven and closed the distance between you and your unworthiness and the thoughts that keep you condemned. He has stepped into the space where you feel unworthy, unholy, unloved to help you create an internal world that is blameless, holy and without accusation. He has shown up to give you grace to think His way, to live inside the freedom He promises. And the if attached to this is ...if you continue in your faith, established and firm and DO NOT MOVE from the hope held out in the gospel.

예수는 너와 네 부적당함, 너를 비난하는 생각 사이의 거리를 용서하고 폐쇄했습니다. 그는 네가 부적당하고 거룩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공간에 들어가 네가 흠 없고 거룩하며 책망받지 않는 내부 세계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약속하는 그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첨부된 '만약'은 ... 네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에서 제시한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입니다.

Where do we continue in our faith? Where do we dig in and stick to the anchor of hope? IN our thoughts, feelings, decisions. When we fix and focus our thoughts on him and his goodness, when we ask the Holy Spirit to bring divine power to the work of cultivating flourishing thoughts that create healthy emotions and life-giving decisions, then the reality of His rescue of us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begins to take center stage. We think rescued redeemed thoughts, we begin to live rescued, redeemed lives that are UP CLOSE to the work of Jesus in our world and not in the cheap seats. When we do this, we are staying established and firmly rooted. We are partnering with the Creator to cultivate a flourishing garden.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을 이어가야 할까요? 소망의 닻에 고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생각, 감정, 결정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선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정비하고 집중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생각을 양성하고 건강한 감정과 생명을 주는 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성령에게 신의 능력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할 때, 어둠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의 현실이 중심 무대에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된 회복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세계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아 살아가기 시작하며, 저렴한 좌석이 아니라 가까이서 그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굳게 서 있고 단단히 뿌리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협력하여 번영하는 정원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Couple of ways: Guard the garden gate. What do you fill your mind with? Marauders are everywhere. (Story) Feed the soil: worship, The word of God, people who fill you with faith and hope. (Story - Psalm 91, Jesus gave it to me one day...then my faith in Him was tested and wobbly...then the prayer people gave it to me, word for word two days later. Word for word. For six days, those words from the Word and from my community were the anchor I had to the hope held out in the gospel. I clung to them. I repeated them. I rested in them. It was a battle, no doubt, but I was not without resources or comrades. This is the gospel. In this world we will have trouble, but Jesus has overcome the world...we are safe in His love. We are the rescued ones. We can live in it and close the distance between our shame and His glory. We can stay

established and rooted. We can live without accusation in a sad and sinful world. Even when it feels like we've been dropped into a wasteland, we can partner with Him to grow a beautiful garden there. A garden that will bear fruit and will reach out over the wall and into our wilderness world. 두 가지 방법: 정원 문을 지키세요.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시나요? 약탈자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야기)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세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워주는 사람들. (이야기 - 시편 91편, 예수님께서서 어느 날 주셨어요... 그 후에 나의 예수 믿음이 시험을 받아 흔들렸고... 그리고 몇 날 후 기도하는 분들이 그것을 나에게 똑같이 전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여섯 일 동안 그 말들은 복음에서 제시한 소망에 대한 나의 닻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달렸다. 반복했다. 그 안에서 안식했다. 분명히 전투였지만, 나는 자원이나 동료 없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수치와 그의 영광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굳게 서 있고 뿌리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암흑하고 죄악적인 세계에서 책망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황무지에 떨어진 듯한 느낌일지라도, 우리는 그와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기르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 정원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황폐한 세계로 나가 퍼질 것입니다.

## RESPONSE